

3人 3色 세특 같은 책 다른 시선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겨울방학 전까지 잠시 여유 있는 시간, 전북 전주고 1학년 학생들은 ‘독서 토론 활동’에 참여했다. 좋은 책으로 종종 소개돼 읽은 적은 없어도 제목은 들어봤던 『육식의 종말』을 일주일 동안 읽고 ‘독서 일지’를 작성한 학생들은 권혁선 수석교사와 책 읽기 수업을 함께했다. 독서 일지를 길잡이 삼아 한 권의 책을 읽고 나만의 책 이야기를 기록해 자신의 관심 분야로 심화해나가 눈길을 끈다.

취재 김지영 리포터 janekim@naeil.com
자료 · 도움말 권혁선 수석교사(전북 전주고등학교)

권혁선 수석교사가 말하는 이 수업은요~

“유연화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융합 수업의 일환으로 시도했어요. 같은 책을 읽고 토론하고 정리했어도, 각양각색으로 표현된 다양한 기록들을 보면 보람이 커요. 학생들의 개성 있는 활동을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기록해 보여줄 수도 있죠. 수업을 심화시켜 진로 활동, 자율 활동으로 활용한 학생도 있어요. 학생들의 호응이 높아서 교과 수업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수업 과정

2020학년도 1학년 독서 토론 활동 기록지

1. 첫 번째 활동 - 독서 일지

학 번	책 제목	육식의 종말	성 명	일 시	분야
	글쓴이(출판사)	제레미 리프킨/시공사			문화, 언론·사회 과학, 예술·체육
1	인상 깊은 구절 옮겨 쓰기 (3~5줄)/페이지	정갈하게 다듬어지고 진공 포장된 쇠고기 냉어리들은 전국 각지의 슈퍼마켓으로 보내져 경유점 카운터의 밝은 조명 아래에 진열된다./23			
	읽은 소감 (7~3줄)	쇠고기를 먹는 인간의 잔인함이 잘 드러나는 구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상 깊은 구절 옮겨 쓰기 (3~5줄)/페이지	남북전쟁이 끝나고 수년 동안 서부 개척지는 미 북부 및 동부 시장에			

2. 두 번째 활동 - 책과 연관된 세상 이야기 적기

학 번	책 제목	육식의 종말	성 명	일 시
	글쓴이(출판사)	제레미 리프킨/시공사		

책과 관련해서 자신이 보거나 들은 이야기(직간접 경험)

얼마전에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었다. 소를 먹는 인간의 행위는 정의로운 것인가? 공리주의의 입장에서는 소를 먹는 선진국 국민들의 행복과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 환경오염으로 인한 저구온의 고통을 계산하여 어느 쪽이 더 큰지 비교하고자 할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소고기를 먹는 것은 시장의 원리에 따른, 즉 합의와 권리에 따른 선택이므로 정의로운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샌델 교수가 추구하는 이상은 공리주의도, 자유주의도 아니다. 그는 자유적 공동체주의자이다.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선에 기여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도덕적인 미덕은 무엇인가 고민하고자 한다. 제레미 리프킨에 따르면, 소를 먹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길은 아니다. 이는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STEP 2 책과 연관된 세상 이야기 기록하기

수업 전 책을 읽으면서 책 내용과 관련해 자신이 보거나 들은 직간접 체험을 기록한다. 다른 책이나 자료에서 학습했던 배경지식이 있다면, 독서 활동을 통해 심화·확장해나간다. 수업 중 친구들과 대화하고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면서 떠오른 생각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새롭게 정리해본다.

3. 세 번째 활동 - 책과 연관된 나의 이야기 적기

학 번	책 제목	육식의 종말	성 명	일 시
	글쓴이(출판사)	제레미 리프킨/시공사	분야	
감상을 기록해 봅시다. 실천이 가능한 부분도 기록해 봅시다.				
소의 가족화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큰 비약이었다. 그러나 소가 산입화되는 과정에서 빌어진 제물들은 소고기 섭취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된다. 리프킨은 보다 나은 세계로의 진입을 위하여 육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을 사회적, 문화적,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소가 폐출하는 대안가스나 숲의 환경화로 야기되는 환경오염, 육식 중심의 식습관으로 인한 질병 발생, 소 사육에 투입되는 꼬리를 등 막대한 차원으로 인한 시장의 비효율적 분배와 기아 발생 등이 책에서 언급된 문제점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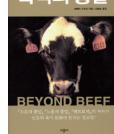
STEP 3 책과 연관된 나의 이야기 기록하기

책과 연관된 나의 감상을 기록한다. 이 단계에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창의적인 방향으로 고민해보고 기록하는 학생들이 많다. 느낀 점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토론해보면서 수업을 정리하고 기록한다.

STEP 1 독서 일지 기록하기

책에서 인상 깊게 읽은 구절 10개를 선정해 옮겨 적고 선정 이유와 소감을 기록한다. 모둠끼리 독서 일지를 돌려보며 자신과 중복된 구절을 확인해보는 등 쇠고기 육식과 관련된 서로의 경험을 나눈다.

육식의 종말



『육식의 종말』은 어떤 책?

육식 중심의 식생활, 특히 쇠고기에 집중되는 음식 문화를 비판하고 이를 통해 미래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한 책. 인문·자연계를 뛰어넘는 통합형 책으로 사회, 과학, 공학 계열에서 해석할 수 있어 독서 활동으로 선정함.

수업 진행과 평가

2020학년도 1학년 독서 토론 활동 기록지

CASE
1

1. 첫 번째 활동 - 독서 일지			
학 번	10715	성 명	김현우
책 제목	국어의 경지	일 시	2021. 1. 10
글쓴이(출판사)	제작자(제작)	분 야	문학, 영문·사회 과학, 예술·체육
1	인상 깊은 구절 (3~5줄)	'개인을 통한 'capital'의 공간은 개인, 개인 외에 있는 'community'와 같은 'spaceness'이다.' (p. 14) 이 책에서 개인을 통한 개인의 공간과 개인 외에 있는 공동체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personal'과 'public'의 그 차이에	
	옮겨 쓰기 (2~3줄)	읽은 소감 (2~3줄)	
2	인상 깊은 구절 (3~5줄)	남성상을 과시한다고 했던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남성호르몬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인데 흥미롭기도 일부 과학자들은 자신을 주로 하는 남성과 육식을 주로 하는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비교했을 때 남성을 하는 남성이 육식을 하는 남성보다 약 13%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적당한 단백질은	
	옮겨 쓰기 (2~3줄)	읽은 소감 (2~3줄)	

읽은 소감
(2~3줄)
독서로 인해 남성과 남녀로 인한 차이에 대해 알게 되었고 현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채식주의자들로 바뀌게 되는 이유도 이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상대방의 관심을 알 수 있는 좋은 부분이었으며 고기를 먹는 21세기 인류가 이와 같은 현상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서 일지 &
독서 후
활동보고서



“육식 만능주의 분석하고 생명과학적 관점에서 해석해봤어요”

_ 전주고 2학년 박민호

활동 기록 고기와 남성성을 연관 지은 내용이 흥미로웠다. 고기 등장 횟수가 줄면 가정에서 남성의 힘이 떨어졌다고 해석된다는 점은 심리학적으로 이해됐지만 생명과학적으로는 좀 더 알고 싶었다. 책에서 소개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채식주의자에게서 더 높게 나온 사례와 <과학자 널>을 참조해 고기와 남성성이 반드시 매칭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됐고 독서 후 ‘활동 보고서’로 작성했다. 책 내용을 바탕으로 모둠 친구들과 경제 이론, 생명윤리 문제를 다룬 <침묵의 봄>을 논하면서 서로 다른 배경 지식을 나눠 뜻깊었다.

평가

육식의 종말(제레미 래프킨)’ 진로 독서 발표에서 맨마크에 육류 공급이 중단되자 질병 사망율이 34% 감소한 사실을 바탕으로 육식을 끊으면 ‘생태적 트네상스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주장함. 채식주의자들의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육식주의자 높아며 ‘육류=단백질 공급원’ 공식을 ‘일반화 본능’의 오류로 발표하여 친구들의 많은 질문을 받고 관련 답변을 차분하게 전개함. 육류의 남성 연관 또한 심리적 현상에 불과하다며 육류의 남성 연관 또한 심리적 현상에 불과하다며 잘못된 역사관에 의해 육식 만능주의를 비판하는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논리적 역량이 매우 탁월함.

2. 두 번째 활동 - 책과 연관된 세상 이야기 적기			
학 번	10825	성 명	김현준
책 제목	육식의 종말	일 시	1/8
글쓴이(출판사)	제작자(제작)	분 야	문학, 인문·사회 과학, 예술·체육
<p>“불길개도 지구는 해체보다 두 배나 많은 인구도 먹여 살릴 수 없이, 수십년 세월은 60억 정도가 되기 하면 1084년 FAO에게 디도면, 다시는”</p> <p>“불길개도 지구는 현재보다 두 배나 많은 인구도 먹여 살릴 수 없이, 수십년 세월은 60억 정도가 되기 하면 1084년 FAO에게 디도면, 다시는”</p> <p>“불길개도 지구는 현재보다 두 배나 많은 인구도 먹여 살릴 수 있어. 오늘날 세계에는 60억 정도가 되지만 1984년 FAO가 따르면, 당시 농업 생산력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구는 120억 인구를 거둘까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였어.” -장진글러웨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 중 /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불구가 되거나 목숨을 잃는다. 그중 5세 이하 아동 수는 세계 전체 인구의 약 11%(8억 명 이상)가 영양이 부족한 상태이며 그중 5세 이하 아동 수는 1억 5천 만이 된다. 그와 동시에, 모순적이게도 전 세계 비만 아동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4천만 명이 넘어가는 수치다. 이는 전 세계에 육식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며,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 많은 식량들은 다 어디로 가는가? 대부분 가축(특히 소)의 사료로 쓰인다. 지구 대륙의 1/4이 가축의 방목지</p>			

CASE
3

CASE
2

2 두 번째 활동 - 책과 연관된 세상 이야기 적기

학 번	11114	성 명	박윤재
책 제목	육식의 종말	일 시	-
글쓴이(출판사)	제작자(제작)	분 야	문학, 인문·사회 과학, 예술·체육

‘햄버거 커넥션’이라는 EBS영상을 본적이 있다. 영상의 내용은 햄버거에 쓰이는 페티를 생산하는 과정이 미처는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 먼저 소를 사용하기 위해 광활한 면적의 삼림과 아존이 블라 없어지고, 소의 사료로 전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만 양의 곡물이 소비되며, 소의 방귀 속 메탄은 온실험과 크게 기여해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켰다. 영상을 본 후에 충격은 커었지만 생각해보면 2년전 영상을 봤을 때부터

“육식으로 인한 부의 배분,
윤리적으로 다뤄봤어요”

_ 전주고 2학년 배윤재

활동 기록 내 식생활과 사회의 관계를 고려해보면서 일상생활에서 당연시된 육식 위주의 식생활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다. 서열화된 단백질 사다리와 건강, 생명 경시 풍조 문제의 해결 방법을 친구들과 함께 모색해보면서, 사회 문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 것 같다. 같은 책을 읽고 서로 생각을 나누다 보니, 각자의 특기에 따라 다양한 의견과 해결 방법이 나타난다는 점을 알게 됐다.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친구들과 허심탄회하게 다뤄본 것이 인상적이었다.

평가

‘육식의 종말(제레미 래프킨)’ 진로 독서 발표에서 쇠고기 산업을 ‘21세기 담배질 사다리로 자행되는 불공정’라고 주장하며 지구촌 기아 현상과 쇠고기 산업의 연관성을 설명한 ‘햄버거 커넥션(EBS)’ 동영상을 소개하고 ‘노화의 종말(레이비드 싱글레이어)’의 채식 위주 식생활의 소중함을 소개하는 저식 정보 활용 역량이 탁월함. 생각과 실천의 차이가 생명 경시 풍조로도 연결된다고 주장하며 육식 소비 비판에 거부감을 가진 친구들과 토론에서 다양한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논리적 사고와 의사 소통 역량이 인상적임.



“배경지식 활용해 육식 폐해
극복할 방안 제안했어요”

_ 전주고 2학년 최한준

활동 기록 육식 생산에서 자행되는 불공정한 행위가 식량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비윤리적임을 얘기했다. 각자 진로나 관심 분야가 다르다 보니, 책에서 집중하는 부분도 조금씩 달랐다. 육식 문화를 지리적으로 접근해 미국의 경우 풍요로운 지형적 특징이 육식 성향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측한 친구도 있었다. 관심 없던 분야를 새로 알게 돼 신선했다. 토론 시 논거가 필요해서 책 읽는 시간이 평소보다 오래 걸렸다. 이때 선생님이 나눠주신 활동지에 기억에 남는 글귀를 써가면서 읽었던 것이 도움이 됐다. Ⓢ

평가

학급 1인 1독서 활동에서 ‘육식의 종말(제레미 래프킨)’을 발표하여 쇠고기와 석유가 지구에 끼치는 악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식견이 인상적임.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장 지글리)’의 내용과 연결하여 마블링 생산을 위한 쇠고기 산업은 살인 행위라고 주장하여 친구들의 애유를 반기기도 하지만 논리적 설명으로 극복함.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쇠고기 산업의 차이점으로 국가별 강제 할당과 같은 방안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오래된 미래(헬레나 호지)’와 힌두교의 쇠고기 산업을 비교 분석하고 최근 일본상품 불매운동이나 ‘비거니즘’과 같은 시민운동을 종교와 연대한 실천 운동으로 제시하는 윤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노력이 우수함.